

체계적 관리·안전 운영 빛났다 감염병 관리·대응·예방 ‘우수’

임실 오수파크골프장,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식 공인 구장 인증 획득

임실군은 지난달 31일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파크골프장이 대한파크골프협회(KPGA)로부터 공식 공인 구장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오수파크골프장은 전국 61번째,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는 3번째 공인 파크골프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시설 경쟁력과 운영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 구장은 협회가 정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코스 구축, 시설 안전성, 관리·운영 체계, 이용 환경등을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인 구장으로 지정될 경우 전국 및 공식 대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이용객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오수파크골프장은 임실군 오수면 일원에 A·B·C 코스 총 27홀 규모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으로, 그동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내·외지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전국 동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높은 인기를 얻어왔다.



임실군 오수면에 위치한 오수파크골프장이 대한파크골프협회(KPGA)로부터 공식 공인 구장 인증을 획득했다.

이 같은 인기는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자 사회적 교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오수파크골프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고령 친화형 생활체육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수파크골프장은 잘 정비된 잔디와 안정적인 코스 구성, 완만한 지형과 다양한 난이도의 조화, 쾌적한 이용 환경과 안전한 동선 확보, 상시적인 시설관리와 친절한 직원 응대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 여건을 갖춘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와 넉넉한 주차 공간,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은 동호인들의 재 방문율을 높이며, 오수파크골프장을 임실군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군은 공인 인증을 계기로 오수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안전한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파크골프 대회 유치 등을 통해 전국 단위 동호인 방문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친환경 농산물 전국 판로 개척 나선다

순창군, 마케팅 지원 본격 추진

순창군이 관내 친환경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도시 소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6년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전국적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

군은 내년도 총사업비 5,560만 원을 투입해, 단순한 판매 지원을 넘어 대도시 소비자들의 접점을 넓히는 체험형 교육과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병

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도시 지역 학교 텃밭체험'과 '통합 홍보 마케팅' 두 축으로 운영된다.

먼저, 수도권 및 제주 지역 초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약 1,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논 밭들기, 모심기, 추수 행사 등 '도심 속 농촌 체험'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순창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심어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브랜드를 각인시킬 예정

이다.

또한, 도 외 지역으로 순창산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하는 조직(태이친환경연합 등)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식이용 생골 제작, 홍보 영상 및 포장재 개선, 택배비 지원은 물론, 팔레트당 10만 원 이내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 신뢰의 핵심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비를 건당 18만 원씩 총 100건까지 지원하며, 서울시 공공 직거래 장터 및 주요 백화점 등 프리미엄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한 공동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이웃사랑 실천 ‘사랑의 기부’ 이어져

임실군에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지역 내 주요 기관과 기업이 '이웃돕기 물품 및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농협중앙회 임실



군지부(지부장 이재문),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 임실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한득수), 임실농업협동조합(조합장 최동선), 오수관촌농협협동조합(조합장 정철석)이 뜻을 모아 백미 1,000kg(20kg 50포)을 기탁했다.

이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임실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홍대환)에서도 현금 300만원을 쾌척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또한, 임실군 소재 기업인 (유)MSM(대표 최지원)에서도 현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보건소, 2025년 각종 평가서 수상 패거

남원시가 2025년 감염병 관리에서부터 대응과 예방까지 감염병 분야에서 우수함을 확인시켰다.

시 보건소(소장 한용재)에 따르면 올해 질병관리청의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상 등 2관왕과 전북특별자치도 신규사업 C형 간염 항체 검사에서 도내 유일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수칙 홍보 및 안내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으며 또한, 2025년 국가 및 지자체 예방접종률 수립과 효과적 운영, 홍보로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2025년 감염병 관리 유공 분야에서 최유빈 주무관은 질병관리청장상을 받았으며, 이는 법정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과 전파방지에 기여했으며, 신종감염병과 계절별 유행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한 결과이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김지혜 주무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공무원' 상



을 수상, 대상자별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예방과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제 계획을 수행해 온 공을 인정받아 '2025년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분야에서 남지혜 주무관이 질병관리청장 상을 수상하고, 전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방제사업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감시와 결핵환자 관리 및 치료 연계를 추진하여 결핵 감염 전파 차단에 크게 기여하여 조연우 주무관이 전북특별자치도 우수공무원 상을 수상했다.

한용재 소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025년 재난관리평가 2년 연속 ‘우수’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3천만 원과 시상금 400만 원을 확보하며,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량 우수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지난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6개 분야 44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병행됐다.

특히 올해는 현장 인터뷰 배점이 대폭 상향되고 실제 재난 대응사례 중심의 맞춤형 질문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순창군은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과 실전 중심의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해왔다.

또한, 부서 간 협업체계와 책임자 교육 강화, 예산 투입 확대 등을 통해 재난관리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치매 어르신 위한 ‘내 인생의 그림책 자서전’ 성료

남원시는 지난해 7월부터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목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삶을 회상하고 기록하는 '내 인생의 그림책 자서전' 프로그램을 남원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

다.

완성된 자서전 그림책 '오늘도 빛나는 나의 인생, 기억의 조각을 그리다'는 참여한 어르신과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사랑상품권 새해부터 최대 12% 혜택

남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026년 남원사랑상품권을 1,21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원사랑상품권은 10% 선할인과 카드·모바일형 상품권 사용 시 2% 후 캐시백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 구매 시 즉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2%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지류형 상품권은 후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원시는 기존의 선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할인과 후캐시백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인 할인 체감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상품권의 실제 사용을 유도해 실사용자 중심의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할인기간 연장

남원시는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할인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연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 감면 시행 시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50% 낮춘 가격으로 임대료가 이뤄지게 된다.

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트랙터, 관리기, 소형굴삭기 등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 부담 완화를 통해 고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영농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발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의 이용 부담을 낮춰 발작물 기계화 확대와 작업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번기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임대료 할인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